

'87 시멘트 決算書

姜 鎮 熙
 〈韓國洋灰工業協會企劃部次長〉

1. 序

87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다.

우리 産業界 전체를 뒤흔들었던 勞使紛糾는 흥역에 비유할 만한 熱病이었고 급기야 經濟活動을 마비시키는 듯하였다. 그런 중에도 勞使間의 긴밀한 協調로 단기간 내에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언젠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측면과 새로운 勞使關係의 定立을 통하여 産業發展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싶다.

우리 産業史에 커다란 劃을 그은 그와 같은 狀況 속에서 시멘트産業은 어떠했는가?

물론 그 소용돌이 속에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시멘트 업계 자체의 紛糾도 발생하였거니와 協力業體들의 紛糾 또한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의 勞使紛糾는 他産業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했던 편으로서 社會的 問題로 클로스 업 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紛糾解決이 容易했고 그 기간도 짧았다.

이는 시멘트 各社가 노사분규의 核心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과감히 受容한데도 있지만 평소 勞使關係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원만한 勞使協調體制를 유지해온 經營者들의 經營方針이 奏效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들의 愛社心에 바탕을 둔 協調精神도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펍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에도 그같은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금년의 經濟與件은 對外的으로는 3低現象의 退潮와 美國의 通商壓力을 들 수 있고 對內的으로는 勞使紛糾 外에 政治的 變革과 圓高等을 들 수 있겠다.

제속 내려가기만 하던 國際金利도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엔貨에 대한 달러가치의 下落도 주춤했을 뿐 아니라 油價는 오히려 上昇勢를 보였다. 이같은 基底 위에서 國際原資材價格도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결국 우리 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評價되던 3低現象의 退潮에 따라 이제 그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히려 원貨의 급격한 評價切上和 美國에 의한 지속적인 통상 압력은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아직 이르긴 하나 정치적 변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같은 불안한 요소와 변화속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 경제는 크게 나무랄데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見解가 支配的이고 보니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安定基調위의 成長이라는 政府의 政策과 기업의 부단한 自救努力, 輸出의 지속적 伸張 등이 좋은 果實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한편 시멘트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輸送共同行爲를 수행해 온 能元企業(株)의 解體를 들 수 있겠다.

能元企業은 약 4년간 존속하면서 輸送共同行爲를 통하여 업계에 常存하는 구조적인 輸送難題들을 무난히 해결하였다.

輸送效率의 極大化로 막대한 內需와 輸出物量을 무리없이 처리하였고 소비지 備蓄強化로 수급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物物交換과 逆輸送防止로 浪費의 輸送費用을 제거함으로써 産業合理化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동안 시멘트 업계가 流通中繼基地의 擴充, 수송장비의 보강 등 구조적인 수송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업계의 수송공동행위 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업체는 各社 自律의인 수송을 하게 되었는데 종합수송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성수기인 9월 이후 수송상의 비능률과 비축기능의 약화로 생산능력이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공급부족현상을 빚기도 했으며 수송비의 낭비도 감수해야만 하였다. 더우기 能元企業의 解體로 오랫동안 同苦同樂 해온 많은 동료들이 業界를 떠나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한편 販賣制度에 있어서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

일부 需要者들로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課題인 口座制와 未販 및 過販으로 일컬어지던 補填制를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保證金制度도 擔保制度로 바꾸는 등 오랜 營業慣行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 많은 불확실성과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나 정부 施策에 부응하고 수요자들의 變化欲求 및 경제적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업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업계는 여러가지 변화에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슬기가 필요한 때이다.

한편 88 올림픽고속도로에 이어 중부고속도로가 완전 시멘트 콘크리트로 鋪裝되어 지난 12월 3일 준공되었다. 날로 증가하는 交通量과 경제 발전에 따른 重量貨物車輛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콘크리트로 施工된 것은 시멘트 需要創出次元을 떠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高速道路도 이제 先進國으로 進入한 셈이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멘트 수급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需 給

1987 년도의 시멘트 需給은 공급과 수요 兩面에서 다같이 上昇局面을 보였다.

금년도의 國內需要는 전년보다 9.1% 증가되었다. 年初 예상으로는 7% 정도의 증가를 기대했었으나 그 이상의 실적을 시현한 셈이다. 당초 7%의 증가를 計劃할 때만해도 불안한 감이 있었으나 設備投資에 대한 기대와 建設工事受注額의 14% 증가 예상, 그리고 정부의 經濟運用計劃에 나타난 GNP 8%, 固定投資 9.2%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서 좀 의욕적으로 본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예측을 훨씬 앞지르는 9.1%의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그 誘發要因은 여러 側面에서 관찰할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輸出好調에 따른 設備投資의 擴大, 行政規制 완화에 따른 建築促進과 88 올림픽 및 選舉特需, 水害復舊事業과 福祉投資의 擴大 등으로 要約될 수 있겠다.

한편 輸出部門에서도 전년보다 12%가 증가하여 4,900천톤 이상의 物量을 海外로 내보냄으로써 공급과잉상태인 國內需給不均衡의 幅을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輸出增加幅은 과히 높은 수준은 아니나 86년의 실적이 4,405천톤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결코 적은 量은 아니며 금년도 日本의 輸出이 5,100천톤에 불과하리라는 日本시멘트협회의 推定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은 國內外需要의 伸張에 힘입어 87년의 稼動率도 크게 向上된 바 86년의 75.3%보다 무려 9.1% 포인트 증가한 84.4%의 실적을 보였다. 稼動率이 70%線에 머물던 해에 비하면 매우 好轉된 상태이나 아직도 공급여력이 충분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供給과 需要의 均衡問題는 88 올림픽 후에 예상되는 需要停滯現象과 向後 輸出市場의 動向 등을 추적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生 產

87년의 생산면을 보면 크링카의 경우 25,190천톤으로 전년대비 112.0%, 시멘트는 25,515천톤으로 전년대비 109.9%의 실적을 보여 모두 10% 전후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內需와 輸出을 합한 總需要가 전년대비 9.6% 증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서 生産會社가 在庫

累増으로 인한 資金壓迫을 줄이기 위해 需要를 고려하여 생산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移越在庫는 前年末 在庫와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稼動率을 보면 年平均 84.4%를 시현하여 86년의 75.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분기 중 68.4%, 2/4분기 90.5%, 3/4분기 87.3% 및 4/4분기 90.9%로서 1/4분기의 稼動率이 가장 낮은 것은 同期間이 非需期인 點을 이용한 많은 補修의 實施와 在庫累増에 의한 限界生産에 기인한 것이며 3/4분기의 稼動率이 4/4분기보다 낮은 것은 勞使紛糾에 의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4/4분기의 높은 稼動率은 9월 이후 內需의 急騰과 8월중의 부진한 생산을 보충하기 위한 활발한 생산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를 會社別로 보면 高麗가 115.3%로 가장 높고, 漢拏가 95.8%, 雙龍 90.9%, 東洋 9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바 高麗와 漢拏는 規模가 작아 生産量을 全量 판매할 수 있는 容易性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一, 現代, 亞細亞 및 屋信은 각각 79.5%, 66.4%, 70.4% 및 70.9%로서 이는 與件上 輸出을 거의 하지 못해 內需市場에만 의존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겠다.

2) 內 需

(1) 需要部門別 實績

87년도 內需는 22,246천톤으로 전년대비 9.1%의 높은 伸張을 보였다. 이는 여러가지 誘發要因 중에서도 選舉特需로 인한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1~8월중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1%에 불과했으나 9~12월간의 增加率이 18.3%로 매우 높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需要部門別로 보면 民需는 前年對比111.5%로 內需增加率을 上廻하고 있는 반면 官需는 전년대비 94.9%로 전년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또한 民官需의 구성비를 보면 民需 87.4%, 官需 12.6%로 전년의 각각 85.5% 및 14.5%보다 그 幅이 더욱 벌어져 해가 갈수록 民需가 內

需를 主導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民需比重이 82년까지는 20%를 上廻하였고 특히 81년에는 25%로 內需의 1/4을 占有했으나 점차 축소되어 83~86년 기간 중에는 15%전후에 그쳤으며 금년에는 이보다 2% 포인트 이상 점유비가 낮아진 것이다.

한편 시멘트 需要를 投入側面에서 보면 建築部門이 으뜸이다. 建築部門에 투입된 시멘트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産業聯關分析에 의해 가능하기는 하나 87년 실적을 당장 計量化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시멘트 需要의 先行指標로서 의미를 갖는 建築許可 動向을 통하여 금년의 內需 패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87년의 建築許可 延面積을 보면 1~9월까지 36,967천m²로서 前年同期比 110.7%로 증가하였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이 95.5%, 商業用이 121.2%, 工業用이 158.2%, 文教社會用이 98.6%를 나타내어 住宅建設景氣가 주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반면 工業用이 높은 증가를 보여 建築景氣를 主導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년 시멘트 需要도 이 部門의 伸張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여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의 特性上 수요의 季節性을 지니고 있다.

87년의 月別 需要를 보면 그 특성을 잘 나타내 1월, 2월 및 12월의 月別指數가 각각 31.9, 48.3 및 83.6으로 平均値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반면 5월, 6월, 9월 및 10월은 각각 120.7, 122.8, 137.0 및 117.2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11월의 수요가 例年の 112.5보다 높은 120.3을 기록한 것은 暖冬과 選舉特需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한편 9월 중의 內需는 2,539천톤으로 月間으로 볼 때 史上 最大를 기록한 바 日平均 85천톤이 出荷된 셈이다.

(3) 벌크·시멘트 出荷

內需出荷中 벌크 시멘트 比重이 포장품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

87년 시멘트 需給總括

(단위:천톤, %)

		86	87	對 比
供 給	移 越	713	655	91.9
	生 産	23,225	25,515	109.9
	計	23,938	26,170	109.3
需 要	內 需	20,387	22,246	109.1
	民 需	17,439	19,443	111.5
	官 需	2,948	2,803	95.1
	輸 出	4,405	4,928	111.9
	(크링카) 計	(1,509)	(1,753)	-
在 庫	655	749	114.4	

註 : 87. 12 月分은 推定算入.

벌크化率의 向上은 輸送效率의 增大, 保管·管理의 容易, 流通의 단순화, 荷役費用과 包裝費用의 절감 및 消費者에 대한 서비스 強化 등의 利點이 많아 중요한 意味가 있다. 다만 流通 施設의 設置, 벌크 輸送手段의 確保 등에 대한 投資와 부지확보, 공해문제 등의 先行課題와 어 려움이 있다.

87년의 벌크 出荷는 12,540천톤으로 總內需의 56.4%로서 前年보다 2.8% 포인트 증가되었다. 이는 예년의 벌크化率의 증가 속도에 비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物量面에서 보면 1,600천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벌크 出荷比重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輸送, 流通 및 販賣 등에 있어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으며 業界는 이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先進國의 벌크化率은 70%를 上廻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 90%를 넘고 있는 바 우리 의 경우 계속 上向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이 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5~6년 후에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今年의 流通基地 出荷率은 60%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으나 南部洋灰基地의 정상 가동 이 目前에 있고 業界가 流通中繼基地 施設投資 를 꾸준히 擴大하고 있어 급격히 上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輸 出

87년의 시멘트 輸出은 크링카를 포함하여 出荷基準 4,928천톤을 시현하여 86년의 4,405천톤에 비해 11.9%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매년 5,000천톤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리기에는 市場與件上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今年의 수출실적을 市場別로 보면 日本 1,565천톤, 香港 905천톤, 美國 568천톤, 사우디아라비아 486천톤, 마카오 386천톤 順이다.

日本市場에의 실적은 前年の 772천톤보다 2배 이상 증가된 바 日本에 대한 投資와 마케팅 強化 및 恩高에 의한 競爭力의 確保로 이룬 결과이며 香港과 마카오의 實績은 86년도 864천 톤보다 49.4% 증가한 것으로서 역시 日本市場

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한편 美國의 경우 輸出의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前年 수준에 머물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前年도의 1,004천톤보다 무려 51.6%가 감소한 실적을 보인 바 建設景氣의 退潮, 自給度 上向 및 유럽 등 인접 수출국들의 供給 擴大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新加坡 市場도 前年보다 32.9%나 축소되었 으며 暹羅 市場은 86년의 亞細亞 市場에 比 較 하여 市場 喪失에 이어 今年에 완전히 喪失하였 다. 新加坡 市場의 축소와 暹羅 市場의 喪失은 印度 네시아, 馬來 시아 등이 수입국에서 대규모 수출국으로 轉換한데다 東南亞市場이 이 들 국가와 인접한 거리에 있어 運賃面에서 우리 보다 競爭力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東 및 東南亞地域은 我們의 수출시 場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喪失단계에 있으며 日本, 香港 및 美國의 3大市場이 전체 수출의 70%를 占有해 市場多邊化에 逆順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中東市場 喪失에 충격을 받은 업계가 新市場 개척의 일환으로 노크한 日本과 美國市場 에서 성공을 거둔 셈이며 이런 패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日本市場은 現地에 前進 流通基地의 建設, 非關稅 장벽 打開 노력 등이 主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韓日貿易逆調 是正에 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